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8호

I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II 2023 한-일 식물검역 협력회의 개최



III 「한국산 생과실 및 채소류의 수출검역요건」 브로슈어 제작 배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29.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 신선 3.7억불(0.1%↑), 가공 18.0(△2.4%), 수산 7.4(△5.1%) -

- '23년 3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919.7백만불
 - (신선) 채소류(92.0, 5.4↑), 닭고기(24.5, 21.1↑) 증가하였으며 인삼류(55.9, 0.2↑) 증가세로 회복되었으나 과일류(88.9, △1.4) 감소
 - (가공) 면류(263.6, 10.8↑), 과자류(157.9, 4.4↑) 증가하였으며 음료(127.3, △2.3) 감소폭 축소하였으나 낙농품(47.5, △1.0), 커피조제품(85.2, △3.7) 감소
 - (수산) 김(190.3, 4.5↑), 굴(18.6, 36.7↑), 전복(12.9, 5.0↑) 증가세이나 참치(125.8, △7.0), 명태(18.5, △68.5) 감소
- * 23년 3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2.6% 감소한 1,515.4억불

< '23년 3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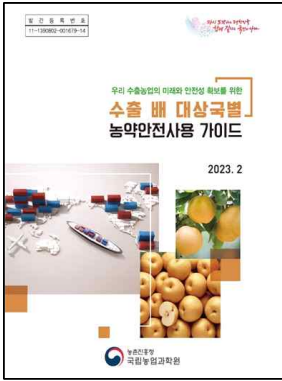
구분	'22(연누계)		'22년 3월(A)		'23년 3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951.7	11,962.3	1,240.4	3,003.8	1,181.2	2,919.7	△4.8	△2.8
□ 농림축산식품	4,025.7	8,823.7	1,015.2	2,222.9	981.3	2,178.4	△3.3	△2.0
○ 신선	532.1	1,576.6	111.7	374.2	112.6	374.8	0.9	0.1
○ 가공	3,493.6	7,247.1	903.5	1,848.7	868.6	1,803.6	△3.9	△2.4
□ 수산물	926.0	3,138.5	225.1	780.9	200.0	741.4	△11.2	△5.1

- CIS·몽골(106.4, 26.0%↑), 중국(522.1, 2.8↑), 일본(508.0, 5.5↑) 증가하였으나 미국(413.8, △11.1), EU·영국(172.9, △23.2) 감소, 아세안(602.8, △3.3) 감소세 완화
 - (중국) 워드코로나 시행과 소비회복으로 라면, 음료 등 가공 중심 수출 증가
 - (일본) 신선 가격경쟁력 악화 불구 김, 굴 등 수산 호조로 수출 증가
 - (미국) 높은 식품물가 상승률로 인한 필수식품 위주 소비로 수출 감소
 - (아세안) 참치, 닭고기 호조에도 불구 음료 등 가공 부진으로 수출 감소
 - (유럽) 비관세장벽 강화와 유로존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 (CIS) 전년동기 전쟁 발생으로 수출이 급감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

< '23년 3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ASEAN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2(연누계)	3,129.3	2,160.7	1,632.6	2,431.8	879.5	443.6	318.3	755.5	396.5	241.7
'223월(A)	729.5	481.4	465.6	623.3	213.1	115.7	83.9	225.3	84.4	47.9
'233월(B)	754.6	508.0	413.8	602.8	204.1	130.8	76.1	172.9	106.4	65.8
증감률(B/A)	3.4	5.5	△11.1	△3.3	△4.2	13.1	△9.2	△23.2	26.0	37.5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은 수출용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배 생산 과정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배는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만 6,274톤, 7,435만 9,000달러이다. 이 책에는 농업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산 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대만, 유럽 연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7개 국가에서 배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목록, 농약안전사용기준(농약 살포 시기, 살포 횟수, 희석 배수 등),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수록했다.

책자는 배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농식품 수출 기술개발로 수출 230억 달러 달성 지원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케이(K) 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제품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지역 수출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수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기자재 수출 등 후방산업의 해외 실증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개 신규과제를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로 4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딸기, 포도를 비롯해 상품화 요구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표준화한다. 수박, 참외 등 박과류 채소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간 중자기업과 협업해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감자,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분야에서는 국내 품종과 기술을 접목해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출물류비 지원이 끝남에 따라 농산물 수송방식을 선박 수출로 전환하고, 해외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 요구에 맞춘 위생관리 기술도 개발한다. 항공수송보다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에이(CA) 컨테이너를 이용한 장기수송 선도유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수출 농산물에 적합한 컨테이너 내 환경조건을 설정하고 내부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에 착수한다. 아울러 생산단계부터 수출 포장까지 단계별로 작업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 작목인 유자, 키위, 애플곶이 등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씨 없는 유자 품종으로 만든 액상 차 제품, 기능성 제품 등 다양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병해충으로 수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골드키위와 애플곶이의 방제기술도 보완할 계획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2023 한-일 식물검역 협력회의 개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3.3.7~3.8. 양일간 검역본부(김천)에서 일본 농림수산물 식물관계자 등과 제8차 한-일 식물검역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약 5년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검역본부는 3월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식물보호협약 총회에서 논의될 의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산 생과실 및 채소류의 수출검역요건」 브로슈어 제작 배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생과실과 채소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품목 및 국가별 수출검역요건이 수록된 브로슈어를 제작 배부한다고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병해충 방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 농가나 단체들이 수출국의 검역요건을 잘 이행하여 우리 농산물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최신 식물검역 동향 등 수출단지나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출검역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